



## 스물네번째 이야기

2018년 부천 '그리스도인의 결혼' 세미나 후기

# 빛진 자가 되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간증문을 쓰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었던 터라 이 글을 쓰는 것이 무척 망설여지고 부담도 컸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이하 '그결') 세미나는 조문상, 김정년 선교사님 부부의 인도로 부천에서 진행되었다. 김 선교사님의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빛진 자의 마음으로 '그결' 수업이라면 어디든 가서서 세미나를 섬기신다는 말씀으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무엇을 빛지셨다는 뜻일까? 얼마나 빛을 지면 수 년 동안 여러 나라에 다니시며 '그결' 세미나를 하시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다. 그런데 수업이 중반에 이르면서 그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어느새 나 역시 빛진 자가 되어 입이 마르도록 '그결' 세미나를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 칭찬하며 홍보하고 있었다.

### 세미나를 듣기까지

'그결' 세미나를 신청한 것은 3년 전에 부천에서 수업이 열렸을 당시 권유를 받았던 기억 때문이다. 남편과 함께 참여해야 하는데 그 때에는 남편의 근무가 일정하지 않은 스케줄이라 불가능했다. 3년 만에 다시 '그결'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의 근무형태도 가능한지라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망설임 없이 신청하였다.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3년 전에 이 세미나에 참여했다면 이 내용에 얼마나 수용을 하며 순종하고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을 떠올려봤는데 아마도 지금처럼 온전히 수용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 세미나를 준비하고 들으면서

BEE 세미나는 늘 그렇듯 예습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 동안 들어왔던 다른 과목 역시 늘 예습을 해왔다. 그러나 이 세미나는 달랐다! 그냥 예습이 아니었다.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세밀하게 살펴보고 준비하였다. 이 세미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는 마력 같은 것이 있었다. 세미나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결혼의 목적을 알아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결혼의 목적을 확인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결혼 생활이다. 그 동안 나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조작하면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섬김의 자세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함을 배우고 또 배웠다.

### 부교재 ‘결혼건축가’

결혼의 목표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연합이다. 부교재인 ‘결혼건축가’에서는 결혼의 목표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 부부의 실례를 들어 설명해주고, 그 부부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사역하는 자매들이 자주 떠올랐다. 모두 비슷한 나이여서 결혼 생활도 15년~20년 정도 되는 자매들이었다. 그 결혼연차 즈음에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겪는 심적 어려움이 종종 있다. 매주 큐티와 삶은 나누는데 자매들과의 나눔을 통해 그 중에는 ‘그결’ 세미나를 듣고 싶었으나 상황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세미나가 또 언제 열릴지 모르기에 그들과 ‘그결’ 세미나를 통해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나누었다. 그리고 ‘결혼건축가’의 한 단원씩 매주 읽고 와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많은 부분에서 인용하고 풀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현재 우리 부부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해석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 동안 연합의 순서(영적 연합→정신적 연합→육체적 연합의 순)도 모른 채 서로 섬겨주기만을 바라며 아내인 나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는데 부교재와 세미나를 통해 연합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불편했던 마음은 온전히 녹아버렸다.

### 과제를 하면서

세미나 기간 동안 몇 차례의 과제가 있었다. 자녀가 결혼할 때를 상상하며 떠남과 합함의 의미를 담아 편지를 써 보기도 하고 배우자의 좋은 점과 배우자에게 바라는 말과 행동 등을 적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 시간에는 배우자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배우자 앞에서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부부로서의 내용이 아닌 자녀 때문에 함께 고민하는 내용에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세미나를 듣는 기간 동안 우리 부부는 사춘기 자녀로 인해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들을 자주 가졌다. 이 세미나가 부부만의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인도자님의 말씀처럼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들이 자녀와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 앞으로의 방향

세미나를 시작할 때 우리 부부는 ‘지금도 좋은데 더 좋으면 어떡하지?’라는 교만한 생각이 조금은 있었다. 그러나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고, 가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연합에 안주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합함에 온전히 이르기까지 계속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 뜻밖의 선물...^^

세미나 기간 동안 뜻밖의 선물이 나를 기다렸다. 그 동안 남편과 함께 참여했던 BEE의 여러 과목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번 ‘그결’ 세미나는 달랐다! 아마도 두세 번째 수업쯤에서부터 느꼈던 것 같다. 남편이 옆에 나란히 앉아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기분 좋은 떨림과 설렘! 그것이 느껴졌다. 연애 기간 동안 느꼈던 느낌이 결혼한 지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 ‘그결’ 세미나에서 그것도 매 시간마다 여러 차례 느껴지다니... 참 행복하고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결’ 세미나는 그 동안 내가 참여했던 많은 BEE 세미나 중에서 최고였다. 그리고 나는 어느새 ‘그결 전도사’가 되어 있었다.



**[글쓴이 김양은 집사]**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딸로 부르심을 받았고 온누리 교회에서 만난 첫 순식구들 중 절반 이상이 BEE를 했기에 자연스럽게 BEE를 시작하였다.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BEE 세미나를 참석하던 중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은 2018년 상반기에 FTS를 마치고 하반기에 부천에서 로마서 FA로 섬길 예정이다.

가족은 남편,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성가대, 예배인도팀), 10년째 여성 사역자(수요오전여성예배)로 섬기고 있다.

---

## BEE의 보석 찾기

---



**8. 이승혜 집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대학원 때, 신앙의 멘토이신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남편을 소개받았다. 당시 남편은 결혼을 위해 하나님께 집중기도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5월에 만나 그 해 12월에 결혼하였다. 결혼 준비중에 남편과 함께 수강한 결혼예비학교가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믿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23년 동안 남편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신앙의 멘토이다. 어느 날 새벽, 먼저 BEE를 시작한 남편을 따라 BEE 기도모임에 나오면서부터 BEE는 예수님을 만나고 남편을 만난 것처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하며, 유년부에서 10년째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는 일과 번동 코이노니아에서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며 찬양을 가르치는 일을 큰 행복으로 여기고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다.

**9. BEE보석을 찾아요~**

**\*다음 주 보석 찾기는 누구일까요?**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결혼한 아내의 기도 덕분에 BEE에 첫 발을 디게 된 집사님! 터어키 성지순례를 계기로 온비아를 시작하여 지금은 서남아 테이블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며 BEE의 여러 모임에서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시는 멋진 집사님입니다!! 하하하! 호호호! 깔깔깔! 헤헤헤! 까르르!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

## BEE 소식

---

1.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하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 '그리스도인 공동체(BEE KOREA의 구성원), 복음에 충실한 공동체(사명을 위한 덕목), 사역의 확대와 확장 (땅끝 까지 이르는 복음), 신실하고 충성된 사역(서로를 위한 격려와 다짐)'을 위해!
2. 2018년 10월 16일(수) 5시 46분! 김미연 선교사가 건강하게 둘째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유하(38개월)의 어여쁜 '여동생'입니다. 축복합니다!! 두 아이가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며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 깊어 가는 가을 속으로 온비아 식구들과 함께 떠나는 '온비아 수련회!' 이번 주 27일(토) 아침 9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먼 나라인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4. 2018년도 하반기 FTS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부터 토요일 아침마다 BEE기도모임 후에 9명의 예비 인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헌신하는 9명의 예비 인도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5. 내년에 40주년을 맞이하는 'BEE WORLD'가 처음 BEE를 시작한 곳인 비엔나에서 CONFERENCE(2019.10.2-9)'를 개최합니다. 40년을 축하하며 그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6. 'MISSION PERSPECTIVE' 세미나가 11월 26일(월) 저녁 7시에 12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BEE식구들을 먼저 초대하는 세미나입니다. BEE 홈페이지에서 빠른 등록을!! RIGHT NOW!